

# 한결같은 색깔 고집하는 전문출판인

## ‘출판학회상’ 기획편집부문상 받은 김신혁사장

“출발 이후 20년 동안 줄곧 철학서적만 펴냄으로써 전문출판사로 자리를 굳힌 서광사에 채찍질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 출판사로서 20년간 한우물만 묵묵히 파온 서광사의 대표 김신혁씨(56)가 한국출판회회가 마련한 제17회 ‘한국출판학회상’의 기획·편집부문상을 수상했다.

철학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춘 기획, 철저한 수요분석으로 일관되게 ‘좋은 책’만을 출간해 오는 한편, 최근에는 유통일인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출판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꾀해왔다는 것이 수상이유.

막상 김신혁 사장은 “출발 이후 20년 동안 줄곧 철학서적을 펴냄으로써 이제 철학전문출판사로 확고한 입지를 굳힌 서광사를 더욱 채찍질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겸손해한다.

서광사는 75년 을지로 3가에서 창사한 이래 철학서적만을 꾸준히 펴내 현재 출판목록이 총 250여종에 이르고 있다. 철학개론, 철학입문, 고대철학, 중세철학, 근세철학, 현대철학, 현상학, 해석학, 존재론, 인식론, 인간학, 정치철학, 역사철학, 예술철학 등 세분화한 목록으로 철학도나 연구자는 물론 관심있는 일반독자도 ‘서광사’ 하면 ‘철학서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요즘은 ‘사랑과 지혜가 깃드는 동화’ 시리즈도 펴내고 있는데, 처음엔 “철학전문출판사가 갑자기 동화책을 내는 것이 무슨 외도인 양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은 “동화책을 내기 5년전부터 직원들을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출판사가 지향하는 바와 꼭 맞아떨어지는 동화만을 엄선, 출간하기로 결정을 봤다”며 철학서적에 관한 한 소수정예로 뭉쳐 있는 직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업선에 업선을 기해 탄생한 이 동화들은 “전문출판이라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더라도 한결같은 색깔을 고집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김사장은 철학전문 출판사로서 서광사의 지향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탈리아쪽의 동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동화 시리즈와 함께 서광사는 일반인들이 철학적 사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록 꾸민 「철학우회집」 「화보와 함께 읽는 도덕경·법구경」 등도 내놓고 있다. 김사장은 현재 24권까지 출간한 ‘사랑과 지혜가...’ 시리즈가 서광사를 이끌어가는 효자노릇까지 특 특이 해주고 있다고 귀땀한다.

한편 김사장은 출간하는 모든 책의 운송·배본을 출판협동조합에 맡김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루고 있다.

“대외영업 업무를 없앤 후에는 이것저것 신경 안쓰고 편하게 좋은 책 만들기에만 힘을 쓰게 됐지요.”

현재 서광사 식구들은 모두 8명. 20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월급날짜를 어겨본 적이 없다는 점과 7년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 김사장의 자랑이다. 거개의 출판사들이 업무도 낼 수 없는 이런 일을 김사장은 ‘즐겁게’ 해내고 있다. 거기다가 부채도 없어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도 자랑거리의 하나. 그래서인지 서광사 문을 한번 들 어선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근속을 한다. 이러한 직원들의 한결같은 신뢰와 의리가 서광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사장은 출판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잡지사, 인쇄소 등 출판 언저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사서부에 있으면서 사전은 “막대한 자본투자 없이는 못낸다”는 걸 절감했고 그래서 서광사를 운영하면서 사전만드는 일만은 좀체 업두를 못낸다고 한다.

모든 출판인들이 그러하듯 김사장 또한 서광사를 ‘업고 안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가 내는 책은 모두가 “자식같다”고 고백한다.

—배은희 기자

# “함량 충분한 책 내는 길 뿐이죠”

## ‘자랑스런 출판경영인상’ 받은 홍지웅사장

“시류에 편승하기보다 ‘열린책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지킬 생각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문학의 소개에 주력하겠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이 뽑은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경영인상’의 제2회 수상자로 도서출판 ‘열린책들’의 홍지웅 사장(41)이 선정됐다. 내년 1월로 창사 10주년을 맞는 ‘열린책들’은 수준 높은 러시아서적들을 전문적으로 펴냄으로써 출판의 전문화를 시도 하는 한편 ‘출판사는 하나의 작은 대학이다’ ‘무결점의 책을 만들어낸다’는 장인정신으로 출판에 임해 왔다. 한편 94년도에 조합을 통해 공급한 매출액 전부를 출자금으로 전환, 업계의 협동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준 상이겠지요.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문학성을 갖춘 책들을 많이 번역·판매해 고급독자들을 독서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점 정도일까요.”

홍지웅 사장의 수상소감은 담담하다. 그동안 ‘열린책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굵직한 작가들은 움베르토 에코, 파트리크 쥐스킨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이다. ‘할만큼’의 신문광고를 적절히 배치하는 한편 부정기적인 신간에고지 「북캐스트」를 발간하는 합리적인 홍보력을 보여온 ‘열린책들’의 기본적인 판매전략은, 일단 한 외국작가를 발굴한 뒤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 해도 ‘될 때까지’ 후속작품을 내며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 결과는 괄목할 만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졌다.

한 예로 지난해 펴낸 「개미」(1·2·3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는 1권만 77쇄를 찍었으며 2, 3권도 50여쇄를 찍은 대형 베스트셀러다. 그에 발맞춰 ‘열린책들’은 후속작품 「타나토노트」를 발간하고 저자 베르베르를 초청해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갖는 기민한 대처를 보였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저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만, 당분간은 시류에 편승하기보다 ‘열린책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지킬 생각입니다. 꾸준히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문학 소개에 주력할 겁니다.”

오는 여름에는 프랑스 작가 르네 벨레토의 「기계」를 「개미」의 뒤를 잇는 ‘베스트셀러’ 후속작으로 내놓을 생각이라는 홍지웅 사장은 철학과를 졸업해 대학원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했다. 애초에는 강단에 설 생각이어서, 유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출판계에 뛰어들었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홍지웅 사장이 가지고 있는 ‘출판도 기능적으로 보면 대학과 유사하다’는 생각도 거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그는 유선방송 개국으로 막을 올리는 ‘본격 영상시대’와 출판·유통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어둡지 않은 전망을 피력한다.

“어떻게든 책 나름의 역할은 남을 것이고, 외파들에 건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원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함량이 충분한 책들을 꾸준히 내는 길뿐이죠. ‘정도를 걷는 출판’을 떠나없이 해간다면 어려운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홍지웅 사장은 중학교 1학년과 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오누이의 아버지이며, 클래식 CD만 200여 장을 소장하고 있는 음악 애호가다.

—한 강 기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6개월분(11호분)  
16,000원